‘함께 책 읽기’로 다름을 이해하기

광주 동네책방 3곳, 작가와 협업
10월까지 문학 프로그램 진행
소수자·생태·치유 등 주제
17일 김탁환 작가 ‘북토크’도

산수책방꽃이피다가 진행한 문학 프로그램 장면. 〈산수책방꽃이피다 제공〉

자긍심, 소수자, 생태, 고전, 치유….

광주의 동네책방이 진행하는 문학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소년의 서, 산수책방꽃이피다, 기역책방은 한국작가회의에서 주최하는 2023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서점들은 오는 10월까지 소수자, 생태, 치유에 초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늘의 동네책방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다. 주민과 커뮤니티를 잇는 가교 역할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북큐레이션을 토대로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 글쓰기,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소년의 서는 매주 목요일(오후 7시) 황지운 상주작가와 함께 ‘Pride, 너와 나의 자긍심’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황 작가의 진행으로 6월 한달 다양한 퀴어문학을 함께 읽으며 자긍심을 함께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안녕, 피터’가 당선돼 등단한 황 작가는 소설집 ‘올해의 선택’, 인터뷰에세이 ‘그리고 오늘의 행복을 모읍니다’ 등을 펴냈다.

오는 8일에는 HIV감염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시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이정식)을 함께 읽는다. 책은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명’으로 사라지는 ‘이름’을 기록했다. 함께 독서를 하며 타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년의서 인근에 있는 빵과장미가 추천하는 책 ‘테이킹 우드스탁’(엘리엇 타이버·톰 몬테)을 읽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유명한 이안 감독의 작품 ‘테이킹 우드스탁’의 원작을 읽으며 20세기 가장 큰 문화적 사건 가운데 하나인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살펴본다.

22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는다. ‘나의 레즈비언 여자친구에게’(이유리 외)를 토대로 책속의 인물들이 차별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를 사유해본다.

숭배와 혐오를 받으며 하나의 상징이 된 마를린 먼로를 모티브로 한 책도 읽는다.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한정현)는 ‘여성’의 사건을 토대로 만들었으며,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임인자 소년의서 대표는 “다양한 퀴어문학을 읽으며 자긍심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소수자 키워드를 토대로 인권, 혐오 등 화두가 되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기회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작은서점 산수책방꽃이피다는 오는 17일 섬진강 인근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섬진강 기행 & 김탁환 작가 북토크’가 그것. 섬진강변에서 생태농부 김동연 박사가 운영하는 미실란을 방문하고, 김탁환 작가가 운영하는 생태책방 들녘의 마음에서 ‘섬진강 일기’ 북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랑수아즈 사강을 읽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22일 오후 7시에는 프랑수아즈 사강이 195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 사이 각종 잡지에 발표한 글을 수록한 에세이집 ‘리틀 블랙 드레스’를 함께 읽을 계획이다.

기역책방은 오는 15일과 22일 시인이자 고전연구자인 김규성을 초청해 고전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듣는다. 김 시인은 이번 강연에서 동양과 서양의 고전을 ‘여기’에 맞게 재해석해 치유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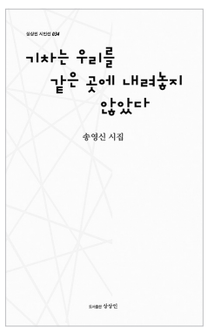
영광 출신의 김 시인은 200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신이 놓친 악보’와 산문집 ‘산들내 민들레’, ‘뫔’ 등이 있다.

송기역 기역책방 대표는 “김규성 시인은 고전 속에 치유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확신으로 여러 고전을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번 강의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 등에 휩싸인 많은 현대인들에게 고전이 담고 있는 치유의 메지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불안과 안심 사이 헤매는 인간의 모습

송영신 시인 첫 시집 ‘기차는 우리를 같은 곳에…’ 펴내



“가도 가도 멀어지는 길, 가슴으로 가는 길, 갈데까지 가면 어둠도 거룩해지는 걸까. 신은 내게 더 이상 널 허락하지 않았다. 하늘을 노려보는 버릇이 생겼다.”

송영신 시인이 첫 시집 ‘기차는 우리를 같은 곳에 내려놓지 않았다’(상상인)를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생의 근간인 만남과 떠남을 모티브로 한 시들과 일상에서 느낀 단상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담겨 있다.

‘틈’, ‘벽’, ‘마음도 벼랑 끝에 서야’, ‘봄이 떨어진다’ 등의 작품들은 삶의 근원적인 모습들을 포착한 시들로 시인의 사유와 지향점을 보여준다.

“사과가 익는 것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 꼭지를 따는 것은 우주와 연결된 탯줄을 끊는 일이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사과 꼭지로 익어 갔을까 얼마나 많은 햇살, 얼마나 많은 별빛과 달빛, 얼마나 많은 바람의 속삭임이 다녀갔을까”

위 시 ‘사과 한 알의 우주’는 사과 하나를 통해 생의 전체, 우주의 신비를 집약적으로 노래한다. 사과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 있는 것이다. 화자는 꼭지를 따는 일을 “우주와 연결된 탯줄을 끊는 일”이라고 비유한다. 비단 꼭지 따는 것만 그럴 것이 아니다. 기실 삶의 복잡다단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꼭지를 따는 일’을 반복하며 자신의 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평론가인 김석준 시인은 추천사에서 “때론 “만남”과 “떠남” 사이에 매개된 존재의 길을 따스한 시선점에 응고시키면서, 때론 “불안”과 “안심” 사이를 헤매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소묘하면서, 송영신 시인은 자기만의 고유한 시말운동을 깨달음의 전언으로 고양시켜가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행정학 박사인 송영신 시인은 ‘문학광장’으로 등단했으며 대학교수로 퇴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명세빈 “불륜연기로 ‘청순가련’ 탈피 성공”

드라마 ‘닥터 차정숙’ 종영

“항상 청순가련한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지하철에서 만난 남성을 향해 “저, 이번에 내려요”라고 전설의 대사를 남긴 캔 커피 CF의 주인공 명세빈(48)은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서 불륜녀 역할을 맡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커피 광고, KBS 드라마 종이학(1998~1999) 등으로 청순의 대명사가 된 배우 명세빈이 ‘닥터 차정숙’에서 이미지를 확 바꿨다.

불륜으로 아이를 낳고, 그 사실을 본처인 차정숙(엄정화 분)에게 들키자 오히려 “이혼하라”고 요구하는 최승희로 변신한 것이다.

명세빈은 “이 나이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배우 명세빈으로서 성장의 기회가 되는 작품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엄정화 언니가 이번 드라마를 ‘선물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랬다”며 “중요한 시점에 새로운 캐릭터를 맡아서 많은 분이 재미있게 봐주고 공감해주셔서 새로운 지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명세빈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악역에 얼마나 몰입했던지 시청자 반응도 격렬했다.

명세빈은 “불륜녀 역할이니까 욕을 듣는 건 그러려니 했지만, 막상 실제 욕을 듣기 시작하니까 잠이 안 올 정도였다”며 “내가 이 정도면 우리 딸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의연하게 잘 이겨내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렇다고 승희가 마냥 악녀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주인공 정숙만큼이나 상처가 많은 인물이기도 했다.

승희는 대학 시절 남자친구 서인호(김병철 분)가 정숙과 돌연 아이를 갖는 바람에 결별하고 미국으로 떠난다. 이후 학회 일로 미국에 온 인호와 재회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른다. 이로 인해 가족과도 인연을 끊는다.

딸이 ‘나를 왜 낳았느냐’고 따져 묻자 승희는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낳았어”라고 답한다. 명세빈은 이 장면에서 눈시울을 붉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승희를 연기하기 위해 인물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명세빈은 “승희는 상처에 갇힌 여자”라며 “성공한 의사이고 외적으로도 화려하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많이 외로웠을 것”이라고 감정 이입했다.

한편 ‘닥터 차정숙’은 마지막 방송에서 18.55%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연합뉴스

임영웅 신곡 나오자마자 음원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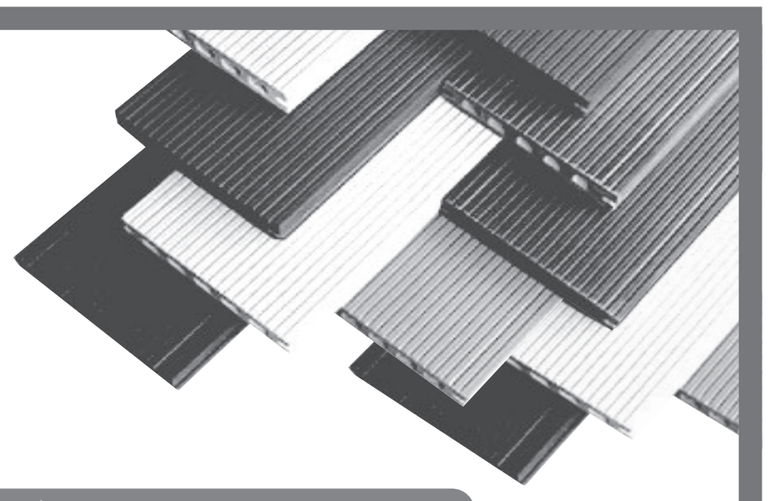
‘모래 알갱이’ 멜론·지니뮤직 정상…걸그룹 히트곡 압도

지난 5일 발매된 가수 임영웅의 신곡 ‘모래 알갱이’가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

6일 가요계에 따르면 ‘모래 알갱이’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톱 100’ 차트와 지니뮤직의 ‘톱 200’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 노래는 (여자)아이돌 ‘퀸카’, 에스파 ‘스파이시’(Spicy), 아이브 ‘아이 엠’(I AM) 등 쟁쟁한 걸그룹 히트곡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임영웅은 이 밖에도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런던 보이’(London Boy) 등 히트곡 다수를 차트에 진입시키는 저력을 과시했다.

‘모래 알갱이’는 지난해 내놓은 첫 자작곡 ‘런던 보이’에 이은 임영웅의 두 번째 자작곡이다. 서정적인 가사와 함께 임영웅의 휘파람이 돋보이는 노래다.

/연합뉴스